

지옥으로 가겠다

어떤 악덕 건축업자가 죽어서ยม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다.ยม라대왕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가고 싶은 곳을 택하라고 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지옥은 그가 지금까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사람들 모두가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반면 천국은 조용하기만 한 것이,사람들이 하루종일 기도만 하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지옥을 선택했고,ยม라대왕은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까 본 지옥과는 달리 그가 간 지옥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ยม라대왕에게 따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리오?ยม라대왕도 거짓말하오? 아까 본 것과는 다르지 않소?”

그러자ยม라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아까 그건 모델 하우스였소이다.!”